

<삼대>에 간접적으로 드러난 염상섭의 항일 의지

채가은 (국어국문학과 202221617)

I. 들어가며

염상섭(1897~1963)은 리얼리즘 문학을 확립한 대표적인 한국 현대 소설가로서 알려져 있다. 10살에 통감부 소속의 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친일적 학풍에 반발하여 2년만에 자퇴를 하는 등 염상섭은 어릴 적부터 정치적 감각에 예민하였다.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당시, 2·8독립선언과 3·1운동의 소식을 접한 뒤 한국인 유학생들을 설득하여 독립 운동을 계획하다가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염상섭의 항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삼대>를 읽는 과정에서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염상섭의 대표작 중 하나인 <삼대>는 조부인 조의관에서 손자인 조덕기에 이르는 조 씨 가문 삼대에 걸쳐 있는 다양한 갈등과 여러 인물의 서사를 다룬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시기부터 작품 속 시대적 배경이 되는 일제 식민 통치 시대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세밀한 심리 묘사와 탄탄한 인물성격화, 그리고 복잡한 서사를 장편 소설임에도 흥미진진하게 끌고 가며 마무리한 점을 보며, 염상섭이 왜 손에 꼽히는 작가인지 그의 역량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삼대>는 짜임새있는 갈등 서사와 심리 묘사가 작품의 주가 되어 흘러가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비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필자는 그 가운데서 조각나 흘러가고 있는 독립 운동 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읽었다. 작품 속에서는 ‘마르크스 주의’나 ‘사회 운동’으로 언급이 되는데, 1920-1930년 당시 사회주의 운동은 민족 해방 운동으로서 민족의 정체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항일 민족 운동, 즉 독립 운동이었다. 염상섭이 <삼대>에 항일 의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아내렸는지 작품의 구조에서, 그리고 등장인물의 서사를 통하여 살펴 볼 것이다.

II. <삼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독립 운동

(1) 검열을 피하기 위한 작가의 방법

<삼대>는 1931년 1월부터 9월까지 《조선일보》에서 연재되었다. 당시 문학 작품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매우 치밀하고 가혹하였다.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통치 정책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무엇이든간에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일제는 언론 및 출판물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반 검열 표준으로서 ‘안녕 질서(치안)’ 방해의 사항 속에 38개 항, ‘풍속 파괴 신문지 출판물 검열 표준’으로 11개항, 그리고 ‘특수 검열 표준’으로 6개항을 만들었는데, 이에 의하면 특히 독립의 선동, 민족 의식의 양양, 배일 선동, 혁명 운동의 선동 등을 통제하였고, 이는 문학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¹⁾ 이렇게 제도적 폭력 장치에 작가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검열의 협박 속에서 그들은 시대적 모순을 과감하게 비판하거나, 항일 의지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없었다.

<삼대>를 읽으면서, 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한 염상섭의 두 가지 방법을 발견하였다. 하나는 숨김표(○, ×)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당시 많은 작가가 사용한 방법인데, <삼대>에서도 발견

1) 민현기, 『한국 근대 소설과 민족 현실』, 문학과지성사, 1989, 239쪽.

할 수 있었다. 작품 속 ‘제이차 ××당 사건’, ‘제삼 ××당’, ‘××회 간부’ 등으로 표현되는 말들은 사실 당시 현실에 존재하였던 단체일 것이며, 일어났던 사건이었을 것이다.

“제이차 ××당 사건말예요. 물론 당신네 회가 중심은 아니었지만……” (277p)

위의 ‘제이차 ××당 사건’은 ‘조선공산당 2차 검거 사건’을 칭한다. 책의 미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일제가 사회 운동을 억압한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하였다면 검열에 걸렸을 것이다. 작가는 정확하게 언급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을 가위표로 나타내는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독자에게 우회적으로 전달하였다.

다른 방법은 독립 운동 서사를 주 내용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고, 조각내어 띄엄띄엄 구성한 것이다. 16장 ‘밀담’에서 소련에서 몰래 국내로 들어온 독립 운동가 피혁(이우삼)이 등장한다. 이어서 19장 ‘김의경’과 21장 ‘활동’, 27장 ‘진창’에서 경애와 병화를 중심으로 그들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난다. 28장 ‘취조’에서는 다른 사회 운동가 집단이 경애와 병화랑 부딪힌다. 32장 ‘용의자의 떼’와 34장 ‘피 묻은 입술’에서는 경애 모친과 장훈에 대한 경찰의 고문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삼대>는 조 씨 가문의 세대 갈등이 주제이다. 그러나 염상섭은 그저 세대 갈등만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 씨 가문의 이야기로 겉을 포장하였으나, 사실 독자에게는 당시 이루어지던 독립 운동에 대하여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이어서, 실제 이루어지던 독립 운동이 등장인물의 서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국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피혁

피혁(이우삼)은 16장 ‘밀담’에서 경애가 병화를 소개해주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한다. 피혁이 경애에게 ‘그런 방면’ 즉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제안하였다. 이후 중매라는 목적으로 병화를 만나 인사를 나누는데, 실제로는 사위가 아니라 독립 운동에 가담할 인재를 찾는 것이다. 처음에 경애와 피혁은 병화에게 피혁의 신분을 숨기고 경애 일가라고 말하나, 병화는 피혁의 구두와 양복 스타일을 보고 계속 의심을 한다. 첫 만남 후 병화는 피혁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국외에서 숨어 들어온 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함께 하라고 제안한다면 그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 내적 갈등을 보인다.

… 이우삼(李友三)이라는 변명으로 병화는 그가 누구인 것을 알고 탁 믿었던 것이다. 이우삼이란 이름은 경찰의 ‘블랙리스트’에는 물론이요, 그동안 몇몇 사람 공판 때마다 재판소 기록에 오르내리던 이름이니만치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한 모퉁이의 두목인 것은 사실이요, … 병화는 절대 신임을 하고 앞질러서 무슨 일이든지 맡으라고 나섰 것이었다. (375p)

위에서 말하는 ‘블랙리스트’는 실제 존재하였던 ‘일제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로 추정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안창호, 한용운, 윤봉길 같은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기록되어 있다. 일제에 의해 분류된 소위 ‘사상범’으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적힌 카드이다. 이름, 나이, 신장, 특징, 출생지, 거주지, 출소 사유, 전과 등 여러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²⁾ 일본은 이 카드를 이용하여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였고, 검거하였을 것이다. 이 점과 병화가 이름을 듣고 바로 알아챈 점을 고려할 때, 피혁은 작품 속에서 상당히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다는 점,

2) 박경목, 「일제강점기 수형기록카드 현황과 명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 2018, 201-240.

경찰들이 그의 행적을 감시하고, 검거하기 위하여 찾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이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피혁의 구두를 발견하고 경애 모친을 겁박하는 장면을 통하여, 피혁이 이전에 러시아에서 지내며 독립 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반도와 두만강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은 구한말 이후부터, 특히 1910년대에 민족운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지역이다. 그러나 1920년 4월, 연해주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억압하고 검거한 신한촌 참변이 있는 후, 정체 상태를 보였다.³⁾ 작품 속 시간적 배경은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으로 추정하는데, 러시아에 있다가 한국으로 도망쳐 내려 온 피혁도 이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병화와 경애의 기밀 유지

28장 ‘새 출발’ 이후에서 병화는 경애와 함께 일본 식료품 반찬 가게를 열고 일을 시작한다. 사회 운동을 하던 병화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형사들도 긍정적으로 보며 심지어 도움까지 준다. 가게를 여는데 사용한 4백 원은 피혁이 병화에게 비밀리에 주고 간 돈의 일부이다.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가며, 병화와 경애가 피혁과 관련된 기밀 유지에 노력하는 모습을 인상깊게 읽었다. 병화는 비밀을 들이지 않기 위하여, 마르크스 주의 친구들과도 얼마 동안 관계를 끊는다.

이렇게 갑자기 변한 병화의 모습을 보고, 동지들은 병화의 변절을 의심한다. ‘기본적 테러폭력단’이라고 불리는 병화와 조금 다른 파는 병화가 기밀비 5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변절하였다고 확신하고 악선전을 한다. 심지어 패거리들이 찾아와서 경애를 겁박하고, 병화와 필순의 부친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패거리의 우두머리인 장훈은 사실 먼저 피혁을 만났으며, 피혁이 경애의 집에서 떠난 뒤에도 잠깐 그를 만났었다. 장훈은 피혁이 경애의 집에 머물렀었다는 점, 돈을 남기고 떠났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애를 떠보고 의심하였다. 장훈은 경애가 병화를 유혹하고 타락시켰다고 말하며 때리는데, 경애는 억울하게 맞는 중에도 절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같은 독립운동가임에도 서로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그래야만 하는 것이 당시 그들의 일상이었을 것이다.

… 확실히 병화나 피혁의 동지 같기도 하나 혹시는 동지인 척하고 속을 뽑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요, 설혹 동지라도 발설을 할 것이 못 되니 경애는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는 비장한 결심을 하였던 것이라 한다. (503p)

경애는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심을 낮추지 않고 계속 의심하며 행동하였다. 이 모습을 작가의 세밀한 심정 묘사를 통하여 읽으면서,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지 느낄 수 있었다. 패거리에 의해 맞은 날까지도 그 둘은 기밀을 지킨다. 심지어 병화는 제일 친한 친구인 덕기에게도, 경애는 모친에게도 천 원의 출처를 절대 밝히지 않는다.

(4) 독립운동가였던 경애의 부친과 고문 당하는 모친

경애의 부친에 대한 언급은 7장 ‘추억’에서 간단하게 제시된다. 이 역시도 부친이 3·1운동에 가담하였다는 점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경애의 부친이 독립운동가였고 이때문에 수감되었다는 점을 상훈과 경애 남녀 사이의 이야기로 덮어 가며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이후 32장 ‘용

3)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한인독립운동의 역사적 성격”, 『한국 근대 소설과 민족 현실』, 민속원, 201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51289&docId=2355160&categoryId=51289&expCategoryId=51289>>.

의자의 떼'에서 경애 모친을 조사하던 형사에 의하여 다시 언급된다.

… 이 노파의 남편이 그 유명한 홍XX이라는 말에 금천 형사는 눈이 커다래졌다. … 제 오라비가 상해로 달아난 뒤에는 부지거처란 말에 또 놀랐다. 이 집안 내력들이 이렇구나 하고 버르는 것이다. (626p)

이 부분을 통하여 경애 부친이 경찰 또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다는 점, 그리고 경애 모친의 오라버니도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한 인물인 점, 즉 경애의 집안이 독립운동에 힘써왔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32장 '용의자의 떼'에서 경애 모친을 고문하는 장면은 읽기가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였으나, 그만큼 기억에 남는 부분이며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 경애 모친의 어깨를 으스러져라 하고 후려잡고 흔들어 놓으니, 애고고 소리를 치며 바닥에 뒹구는 것을 발길로 두어 번 걷어찼다. (629p)

형사는 경애 모친에게 피혁, 장훈, 병화의 일을 소리치며 겁박하고, 경애 모친은 모른다고 한다. '남편의 덕에 이런 곤경도 좋지 치어나서'라는 부분을 통하여, 경애 모친 또한 과거 독립운동 건으로 잦은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형사는 별안간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어서 나오는 장면에 경악하였다.

… 경애 모친은 하도 무서운 큰소리에 밑을 찌르는 듯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상히도 사지가 찌르르 하는 것을 깨달았다. 10년 전 남편 때문에 불려갔을 때도 두 차례 세 차례씩 그 몹쓸 고생을 당하였다. 또 그러려고 끌고 가는 거나 아니가? 하는 겁이 펴져 나서 두 다리가 허청 놓이며 부르르 떨린다. … 거의 한 시간 뒤에 경애 모친은 어두컴컴한 속에서 만들어 붙인 고무손 같은 손으로 흑흑 느끼면서 옷을 주워 입고 형사를 따라 환한 방으로 다시 왔다. 아래위 어금니가 딱딱 마주쳐서 입을 어우를 수도 없고 어디 가 앉을 기운도 없다. 손발은 여전히 내 살 같지가 않고 빠질 것만 같다. (631p)

10년 전 3·1운동 당시 경애 모친도 남편과 함께 여러번 고문을 당하였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모친의 반응을 통하여, 불안 장애의 일종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제 경찰이 행했던 고문에는 가죽 채찍으로 맨몸을 휘감아 갈기는 수법이 있는데, 경애 모친도 이와 유사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10년 전에 당한 '몹쓸 고생'과 한 시간 동안의 처참한 고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검열을 당하지 않기 위해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자는 제시된 부분만으로도 큰 충격과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5) 장훈이 당한 고문과 자살, 그리고 폭탄

경찰이 장훈에게 가한 고문이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34장 '피 묻은 입술'은 읽기 힘들었던 또 하나의 부분이었다. 순사들이 바닥에 내던지듯 내려놓은 '검정 외투를 얼굴까지 뒤집어쓴 송장 같은 것'은 고문 당한 장훈이었다.

… 얼굴이 아니라 시꺼먼 선지 덩어리다. 코, 입, 뺨…… 할 것 없이 그대로 낙절한 선지 찢덩이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마치 그믐 밤중에 메줏덩이를 손 가는 대로 문쳐 놓은 것 같다. 입이 어디가 붙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눈만 반짝하고 뜬다. (653p)

위 부분을 읽으며 장훈이 얼마나 잔혹한 고문을 당하였는지 상상하여 보기도 힘들었다. 또한 비유를 비롯한 작가의 섬세한 묘사 능력에 재차 놀랐다. 일제의 잔혹한 고문 수법에는 주

먹과 구둣발로 목부분과 전신을 비벼대거나, 대나무 못을 손톱과 발톱 사이에 박는 방법, 머리채와 귀를 잡아끌고 다니며 구타하다가 돌바닥에 처박는 방법 등이 있었다.⁴⁾ 사흘 밤낮으로 고문을 당한 장훈의 얼굴의 묘사를 보면, 이와 유사한 정도의 고문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였다.

최근에 영화 ‘영웅’을 보았는데, 안중근의 동지인 마두식이 고문을 받는 장면이 연상되었다. 안중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은 마두식의 사지를 묶은 채 고문을 시작하였고, 마두식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온 몸이 피투성이고, 바닥에 피가 줄줄 흐르지만 마두식은 안중근을 위하여, 자신들의 독립운동을 위하여 자신이 죽더라도 절대 발설할 수 없다는 노래를 하였다.

장훈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장훈은 사흘 내내 모른다는 말 한마디 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도 이러한 사람은 처음 본다고 놀라하는 언급이 있다. 장훈은 끝내 죽기 위하여 독약(코카인)을 먹고 혀를 찼었다. 장훈은 ‘자기네 일의 결정적 운명을 좌우하는’ 조그만 시험관 하나를 죽음으로 지킨다고 하였다.

폭탄은 실험해본 결과 놀랄 만한 위력을 가진 것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것 같지 않은 특수성을 띤 것이 더욱 의문이라 한다. (681p)

작품은 위 문장으로 끝이 난다. 앞서 장훈이 언급하였던 ‘우수한 과학적 두뇌를 가진 동지들이 머리를 싸매고 모여앉아서 연구를 계속하는’ 이 시험관 연구가 폭탄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굳이 장훈이 자살을 결심한 이유에 ‘시험관’을, 작품의 마지막을 ‘폭탄’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훈과 동지들은 폭탄을 제조하고 그 위력을 극대화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1920년 당시 존재하였던 의열단은 과격하고 급진적인 폭력투쟁을 목적으로 하였다. 암살 대상으로서 조선총독 이하 고관, 매국노, 친일파, 밀정 등을 규정하였다. 파괴 대상으로서는 조선총독부, 동양척식회사, 각 경찰서 등을 규정하였다. 위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폭탄 제조법을 서로 배우고 만들며 항일폭탄의거를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1920년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박재혁, 1926년 조선 식산 은행과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등이 있다.⁵⁾ 의열단의 의거는 계속되었고, 이 항일투쟁이 민족운동사상에 큰 공헌을 끼쳤다. 염상섭도 이러한 의열단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작품에 관련 요소를 숨겨 넣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Ⅲ. 나오며

리얼리즘 소설로서의 <삼대>를 그 당시 독자의 시점에서, 독립 운동이 이루어지던 현실과 대입하여서 추론하며 읽어보았다. 경애 부친이 참여하였던 3·1운동이 1919년이고, 경애 모친이 그 때가 10년 전이라고 언급하는 걸 보아,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삼대>는 1931년에 연재되었기에, 염상섭은 자신이 보고 들던 그 당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이렇게 남긴 것이다. 1920년대에는 다양한 대중운동과 의열투쟁이 일어났다. 또한 독립 운동 노선이 분열되는데, 민족주의 내에서 타협과 비타협이

4) 김삼웅,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나남, 2000, 83쪽.

5) “의열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3334>>.

갈린 후,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하나의 길을 걸었다. <삼대>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이 주인공인 점을 보아, 염상섭 또한 당시 사회주의를 지향하였던 것 같다.

작품을 통하여 염상섭이 항일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고 본 이유는, 당시 검열로 인하여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항일 의지를 자연스레 녹여낸 점이 인상깊었다. 또한 <삼대> 속 독립운동가들이 그저 항일 의지만을 가진 고정된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보이며 개개인이 자신만의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작품의 특징이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현실적인 관계를 꾸려나가고, 그 속에서 성격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한다. 빈민, 갈등, 자존심, 수치심, 사랑, 고통, 욕망 등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인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당시 조선 현실 속 어디에서나 살아가고 있을 독립운동가들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경애 모친과 장훈이 가혹한 고문을 당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당시 식민지 조선의 어두운 현실과 독립운동가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작품의 마지막이 매우 기억에 남는데, 서른 다섯 장 동안 진행되는 조 씨 가문의 갈등 이야기가 출처도 모를 폭탄을 언급하며 끝이 난다. 따라서 이 마지막 문장이 염상섭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점이라고 생각한다. 결말을 짓지 않음으로써, 독자에게 뒤의 내용을 상상하게 만들고, 문제 의식을 던진다. 또한 후반부에 ‘여러 계통의 인물이 책동 잠입’하고 있다고 경찰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계통’이란 당시 활동하던 다양한 항일 운동가들을 의미할 것이다. 독자는 이를 통하여 당시 사회 안에서 여러 집단들이 몰래 활동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술 방법과 등장인물들의 서사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현실을 알린 것을 볼 때, 염상섭이 항일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는 결론을 지었다.

IV. 참고 문헌

김삼웅,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나남, 2000.

“러시아 연해주 지역 한인독립운동의 역사적 성격”, 『한국 근대 소설과 민족 현실』, 민속원, 2013.

민현기, 『한국 근대 소설과 민족 현실』, 문학과지성사, 1989.

박경목, 「일제강점기 수형기록카드 현황과 명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4, 2018, 201-240.

염상섭, 『삼대』, 문학과지성사, 2004.

“의열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